

少陰人の 臟腑經絡論的 考察

염태환*

Overview of four subgroups in Soeum(Lessor Yin) Constitution, which are classified based on 'Chang(=Viscera) and Fu(=Bowels) meridian theory'

Yom Tae-hwan

Dr. Yom Acupuncture clinic

Four-constitutional theory proposed by Dr. Lee, Je-ma has been evolved for last 100years by his followers. One of the major progresses was the emergence of constitutional acupuncture proposed by Dr. Kwon Doh-won. Constitutional acupuncture included the new pulse diagnostic method to determine the body type, pulse diagrams and corresponding acupuncture method called five element acupuncture in which five- element points in 12 meridian channels are used. Dr. Sa-ahm proposed five-element acupuncture three and a half hundred years ago. Conjunction of Dr Lee's theory to Dr. Kwon proposed eight constitutions with eight pulse diagrams. He also adopted eight acupuncture prescriptions out of twenty-four Sa-ahm's acupuncture prescriptions. The author, Dr. Yom Tae-hwan, proposed more inclusive theory of 24 constitutions with 24 diagnostic pulse diagrams in Las Vegas International Acupuncture Convention in 1986.

This article reviews history of constitutional medicine briefly. Each step of theoretical evolution from four-constitutional theory to twenty-four-constitutional theory is explained. By understanding the theoretical connection between twelve meridian channels based on five-element theory and four-constitutional theory in the article, one will easily accept the emergence of twelve of twenty four constitutional theory. Next, the article is focused on four subcategories under Sao-Yin constitution, which are one-sixth of 24 constitution. in this section classification, pulse diagnostic method, pulse diagram acupuncture prescriptions and herbal prescriptions are explained in detail. Then, clinical trial reports of acupuncture treatment and/or herbal formulas for such constitutions are attached for the rest part of the articl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new hypothesis with the result of preliminary clinical trial hoping that additional clinical reports from other practitioners in this field triggers well-designed clinical study in future.

*염한의원
교신저자 : 염태환 주소) 35-15 Murrary St., Flushing, NY 11354, U.S.A. Tel) (718) 358-3031

초 록

이제마선생에 의해 제창된 사상체질론은 지난 백년간 후세 사상연구가들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권도원(權度元) 선생에 의해 제창된 체질침(體質針)의 출현이었던 것이다. 체질침법에서는 종래의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맥법(脈法)과 맥도(脈圖) 그리고 체질에 따른 체질침방(體質針方)이 운용되고 있다. 이 체질침방의 경우 실제로는 장부경락(臟腑經絡)의 오행혈을 운용한 사암(舍岩)선생의 오행침을 체질침화(體質針化)한 것이다. 이제마 선생의 체질이론과 사암선생의 오행침이 결합된 것은 실로 역사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권도원 선생은 여덟 개의 맥도와 함께 8체질론을 내세웠으며 스물네개의 사암선생 침방 중 여덟 개를 체질침화하여 이 여덟 체질의 기본 치료처방으로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저자인 염태환은 지난 1986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동양의학 학술대회에서 이미 24체질론과 24체질 맥도를 제시한 바 있다.

본 논문은 우선 체질의학의 발달에 대한 역사를 간단히 정리하였다. 4체질론에서 시작하여 24체질론까지의 발전되어 온 단계 단계를 여기에 설명되어 있다. 이 설명 속에서 심이경락이 어떻게 사상의학과 이론적으로 결부되는가를 이해하게 되면, 24체질론의 출현이 쉽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본 논문은 이 24체질 중 특히 소음인에 속하는 네 체질에 대하여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네 개의 체질에 대한 체질맥진법, 맥도, 침법 그리고 한약처방 등이 이 논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의 뒷부분에는 이 네 체질에 대한 저자의 임상 실례들이 실려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새로운 학설을 임상실례와 더불어 소개함으로써, 더욱 많은 한의사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체질침을 임상에 응용하게 하며 또한 앞으로 치료효과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한 이중맹검시험(Double blind controlled study) 등이 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1. 序 論

韓國이 낳은 碩學 李濟馬¹⁾는 그의 著書 東醫壽世保元²⁾에서 人間을 四象人으로 分類하는 體質醫學을 發表하였다. 그리고 그 東醫壽世保元은 四象人 즉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太陽人을 論述함에 있어서 少陰人을 二論으로 나누어 腎受熱表熱病論과 胃受寒裡寒病論으로 論及하였고, 少陽人을 脾受寒表寒病論과 胃受熱裏熱病論 二論으로, 그리고 太陰人도 胃脘受寒表寒病論과 肝受熱裡熱病論의 二論으로, 그리고 太陽人도 外感腰脊病論과 內觸小腸病論의 二論으로 나누어서 論及한 바 있다. 이와 같은 四象人의 寒熱表裏內外論으로 分類되는 論述은 後學들 등 他人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 原著者 李濟馬 自身の 論據이며, 四象體質이 곧 寒熱 表裏 內外 등

으로 分類되는 八綱論과 腎, 胃, 脾, 胃脘, 肝, 腰脊, 小腸 등이 登場하는 臟腑論의 見解가 內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四象人病論의 病證論은 後人들 예를 들면 李賢在³⁾의 寒熱太少陰陽人의 八象體質分類의 根據가 되었고, 이어서 權度沆⁴⁾에 의한 八體質의 體質針醫學으로의 創業을 보게 된 것으로 안다.

오늘 發表되는 本小考는 비록 假說로서 出發되고 있으나, 이것은 演者가 1986년에 發表한 「24體質論과 그 脈診法 研究⁵⁾」의 6分之1에 該當하는 各論이라고

1) 李濟馬 : 1837~1900, 號는 東武, 四象體質醫學의 創始者, 著書에 東醫壽世保元, 格致藥 등이 있음

2) 東醫壽世保元 : 李濟馬 著 1901年 初刊됨

3) 李賢在 : 1909~1973, 四象醫學研究家, 寒熱太少陰陽人說을 主張하고 이를 臨床의으로 活用함

4) 權度沆 : 1965년에 論文 「體質針」이 東京大會에서 發表되므로써 學界의 非常한 關心을 모음, 이어서 1973년에 「體鍼의 研究」가 發表되므로써 針에 의한 8體質醫學의 새로운 場을 開展함.

5) 「24體質論과 그 脈診法 研究」, 1986년 라스베가스 大會에서 發表된 廉泰煥의 24體質說, 體質은 十二經臟腑의 天稟의 實과 虛에 의한 24體質이 있다는 것과 이를 診斷할 수 있는 24脈圖가 提示됨

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少陰人의 臟腑經絡論의 考察은 이어서 太陰人, 少陽人, 太陽人篇도 이루어져서 全人 體質의 臟腑經絡論의 完成을 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될 때 體質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正答을 얻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體質醫學의 完成된 體系가 確立됨으로써 醫學으로써의 位置가 確保될 것이다.

II. 本 論

1. 臟腑의 大小와 體質

李濟馬는 그의 著書 四端論에서 臟理의 天稟의 大小가 四象人의 體質이 成立되는 要因이라고 하였다.

「人稟臟理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 名曰太陽人 肝大而肺小者 名曰太陰人 脾大而腎小者 名曰少陽人 腎大而脾小者 名曰少陰人」

「사람이 타고난 臟腑의 理致가 네 가지가 있어서 서로 다른데 肺大하고 肝小한 者를 太陽人이라 하고 肝大하고 肺小한 者를 太陰人이라 하며 脾大하고 腎小한 者를 少陽人이라 하고 腎大하고 脾小한 者를 少陰人이라고 한다.

以上에서 볼 때 十二經臟腑論의 六臟六腑에서 六臟 中의 心과 心包를 除外한 四臟 즉 肺, 肝, 脾, 腎의 天稟의 大小關係가 太少陰陽人 즉 四象體質을 이룬다는 것이다. 四臟도 肺는 오직 肝과, 脾는 오직 腎과 각각 相對가 되어 그 어느 쪽이 大한가 小한가에 따라 體質이 決定되고 있으므로 기타의 四臟關係, 예를 들면 肺와 脾, 또는 肝과 腎, 또는 肺와 腎, 또는 脾와 肝과의 大小關係는 전혀 體質成立의 要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四端論의 臟理는 肺는 오직 肝과, 그리고 脾는 오직 腎과의 相關關係에서만 四象人이 成立된다는 原則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理由가 說明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五行論의 臟腑經絡論과 四象醫學과의 關聯性을 全적으로 否定하는 立場에서는 이것에 대한 解義가 매우 힘들어진다. 그렇지만 여기에 五行說을 採用하여 肺는 金, 肝은 木, 그리고 脾는 土, 腎은 水라고 해보면 이것들이 서로 相剋關係에 놓여 있다는 것이 說明되고 서로의 勝負 關係에서 오는 牽制差異가 體質을 成立하고 있다라고 하면 곧 理解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大小라는 두 文字가 갖고 있는 意味도 쉽게 풀릴 수 있다. 이 大小에 대하여 或者는 體積, 或者는 重量, 或者는 機能의 亢進과 減退, 或者는 臟腑經絡係의 天稟의 虛實 等等으로 각각 見解가 다르고 있다. 여기에서 演者는 바로 이 臟理의 大小名題를 「臟腑經絡係의 天稟의 實과 虛이다」라고 假定義하면서 本考察을 論述코저 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證明의 길은 現在로서는 體質針으로 하여금 試驗의 針法을 施行하고 이에 대한 被檢者의 自覺의 反應과 他覺의 變化 등을 綜合하여 判定하는 筈밖에는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試驗의 被檢者의 集團의 試驗에 앞서서 할 수 있는 것이 自然스러운 來院患者들에서 얻을 수 있는 臨床治驗에 의한 考察의 證明일 것이다. 아무튼 여기서는 臟理의 大小가 體質을 成立하는 要因이란 것을 再強調하는 바이며 이 臟理의 大小論 自體를 처음부터 否定해서는 本考察은 물론 李濟馬의 體質論 自體의 存立이 不可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 少陰人의 臟腑病論

前節에서 少陰人의 臟理가 腎大脾小함을 알았다. 즉 腎은 大하고 脾는 小한 臟理의 所有者가 少陰人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東醫壽世保元 卷之二에 나오는 少陰人論에서 少陰人을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과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의 二論으로 나누어 論及하고 있다. 四端論에서 少陰人의 臟理가 腎大脾小라고 했으니 腎大에 腎受熱表熱病의 體質病이 따르고 脾小에는 胃受寒裏寒病의 體質病이 따른다는 病論을 다른 題目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腎大에 腎受熱病云云하는 것은 當然한 論據가 되나 어찌하여 脾小에서는 脾代身 脾의 腑인 胃가 寒을 받아 裏寒病의 論이 展開되고 있는가? 하는 疑問이 생긴다. 그렇다면 脾小에 대한 脾病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기에서 脾小쪽인 脾의 腑인 胃가 登場했으니 腎大側의 腑인 膀胱에도 어떤 病論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着想이 생긴다.

3. 少陰人假說 4體質과 그 定義

여기에 다음과 같은 少陰人假說 4體質을 提示하고 이를 定義한다.

1) 腎實體質

定義: 足少陰腎經과 그 臟인 腎이 天稟의으로 實한 體質을 腎實體質이라고 한다.

2) 脾虛體質

定義: 足太陰脾經과 그 臟인 脾가 天稟의으로 虛한 體質을 脾虛體質이라고 한다.

3) 膀胱實體質

定義: 足太陽膀胱經과 그 腑인 膀胱이 天稟의으로 實한 體質을 膀胱實體質이라고 한다.

4) 胃虛體質

定義: 足陽明胃經과 그의 腑인 胃가 天稟의으로 虛한 體質을 胃虛體質이라고 한다.

4. 李濟馬의 豫言과 體質針

東醫壽世保元 少陰人泛論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한 少陰人이 中氣病에 걸려 혀가 말려 들어가서 말을 못하게 되었는데 어떤 韓醫師가 와서 合谷穴에 針을 놓았더니 그 效力이 神通하였다. 이것을 볼 때 其他의 모든 疾病에도 藥이 速效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 針이 能히 速效를 낼 수 있을 것이니 무릇 針穴에도 太少陰陽 四象體質에 따라 應用될 수 있는 經穴이 반드시 있어 升降緩速한 妙法이 있을 터이니 이를 잘 살펴서 研究啓發해주시기 바란다. 바라건대 뒤를 잇는 謹厚한 學者가 나오기를 期待하는 바이다.」

「嘗見 少陰人 中氣病 舌卷不語 有醫 針合谷穴而 其效如神 其他諸病之藥 不能速效者 針能速效者 有之 蓋 針穴 亦有太少陰陽四象人 應用之穴而 必有升降緩速之妙 繫是不可不察 敬俟 後之謹厚而 好活人者」

이 李濟馬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針穴 卽 經穴과 經絡에 대한 體質論과의 結緣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곧 前節과 같은 臟腑經絡과 天稟의 臟理의 虛實이 結緣되는 假說體質論이 定義되어야 可能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研究가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것이 바로 權度沆의 「體質針」이다. 이것은 바로 李濟馬 豫言의 中이기도 한 것이다. 바로 이 李濟馬의 이야기 즉 針穴에도 반드시 太少陰陽의 四象體質에 따르는 針法이 있을 것이라 한 것은 바로 오늘날의 「體質針」을 꿰뚫어 내다보고 한 이야기가 틀림없다. 따라서

經穴 經絡臟腑論의 體質의 連結은 곧 李濟馬가 바라던 바를 이루는 方法論이 되므로 매우 自然스러운 着想이며 조금도 異常할 것이 없는 李濟馬 學說의 連續인 것이다.

5. 論文 「體質針」 中の 水象人臟質과 水象人腑質

論文 「體質針」 中の 水象人은 少陰人의 改名이며 水象人臟質은 腎實體質과 同一하고 水象人腑質은 胃虛體質과 同一하다. 따라서 論文 「體質針」에서는 假說 腎實體質과 假說 胃虛體質은 이미 既說로 되어 있다.

6. 「24體質論과 그 脈診法研究」 中の 4體質

論文 「24體質論과 그 脈診法研究」 中の 24 體質 中 「腎實體質」, 「脾虛體質」, 「膀胱實體質」, 「胃虛體質」의 4體質은 本 考察의 4假說體質인 「腎實體質」, 「脾虛體質」, 「膀胱實體質」, 「胃虛體質」과 同一하다. 따라서 本 考察에서는 假說 4體質이나 論文 「24體質論과 그 脈診法研究」에서는 이미 既說로 되어 있다.

7. 少陰人假說4體質의 脈診法과 그 脈圖

少陰人假說4體質(以下 少陰人4體質이라고 略稱함) 卽 腎實體質, 脾虛體質, 膀胱實體質, 胃虛體質을 診斷할 수 있는 體質診脈法이 나와 있다.

이 體質診脈法이란 論文 「體質針」에 發表된 權度沆 發見의 體質診脈法을 말한다. 이 方法으로 8體質을 診斷해 내고 있는데 演者는 그 方法으로 하여금 24體質을 診斷하고 있다. 24體質의 8體質脈圖는 權度沆 既發見 脈圖와 同一하다. 나머지 16體質의 脈圖는 論文 「24體質論과 그 脈診法研究」에서 發表된 바 있다. 여기에 少陰人 4體質을 診斷할 수 있는 脈圖를 再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이 體質脈診法의 習得은 어느 정도 期間의 訓練을 要하나 한의사면 누구나 할 수 있다.

8. 少陰人 4體質의 體質針處方

少陰人 4體質의 體質針 處方을 記述하면 아래와 같다. 이것은 1990年 以來 演者가 사용하고 있는 最效能의 處方이다. 4體質이 모두 3穴만 選擇되어 있는 것이 特徵이다.

표 1. 少陰人 4體質의 脈圖와 緣由

少陰人 4體質名 演者	腎實體質	脾虛體質	膀胱實體質	胃虛體質
李濟馬	少陰人			
李賢在	熱少陰人			寒少陰人
權度杭	水陽體質			水陰體質
體質脈診法 發見者	權度杭			
體質脈圖 發見者	權度杭	演者	演者	權度杭
脈圖 發表年度	1965	1986	1986	1965
體質脈度	左 右 1 Ⅱ 2 Ⅱ 3 ① Ⅱ ①	左 右 1 ① Ⅱ 2 Ⅱ 3 ① Ⅱ ①	左 右 1 ① Ⅱ ① 2 Ⅱ 3 ① Ⅱ ①	左 右 1 Ⅱ 2 Ⅱ 3 ① Ⅱ ①

左는 피검자의 左脈, 右는 피검자의 右脈, 1은 한의사의 示指, 2는 中指, 3은 藥指, ①는 크고 세게 감지됨. ②는 적고 약하게 감지됨.

표 2.

4體質 針法	腎實體質	脾虛體質	膀胱實體質	胃虛體質
隨針	太谿	少府 大都	委中	陽谷 解谿
迎針	經渠 復溜	隱白	少商 至陰	陷谷

用法: 體質脈診法으로 하여금 少陰人 4體質 中의 한 體質이 診斷되면 各 體質에 該當한 體質針處方으로 體質針을 施行한다. 例를 들면 腎實體質의 경우 針하나로 먼저 太谿를 隨針하고 즉시 拔針한 후 다음은 經渠를 迎針하고 即時 拔針한 후 다음은 復溜를 迎針하고 即時 拔針하면 되는데 現在 演者는 左右穴을 다 쓰고 있다. 例를 들면 腎, 脾 등 臟體質은 左側을 먼저 6회 반복 施針한 후 그 다음엔 右側을 6회 반복 施針하며, 膀胱 胃 등 腑體質은 右側穴을 먼저 7회 반복 施針한 후 左側穴을 7회 반복 施針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또는 畏針者는 回數를 줄여도 無妨하다.

效能: 體質針 治療는 病名이나 어떤 病證 또는 어떤 病證勢를 대상으로 針處方이 運用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나 그 不健康한 자 또는 保健用으로 針을 맞으려는 사람의 天稟의 臟腑虛實에 따르는 體質에 따라서 實體質은 瀉方, 虛體質은 補方을 施針함으로써 疾病의 治療와 健康의 增進이 同時에 이루어짐으로 體質만 올바로 진단되면 該當 體質針의

效能은 其他의 어떤 治療法도 이만큼 安全하고 이만큼 全効的이지 못할 것이다.

9. 少陰人 4體質의 韓藥處方

少陰人 4體質의 體質의 韓藥處方은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處方으로 列舉된 仲景23方, 宋元明經驗19方, 東武新定24方 等內에서 選擇하는 것이 가장 效果의 이라고 할 수 있다. 勿論 古今醫들의 經驗方등을 博涉하면 多少의 쓸 만한 處方이 더 發見될 것으로 믿지만 演者가 보기에는 體質韓藥處方의 境遇 東武의 選擇方을 凌駕할 方劑는 찾기 어려울 것으로 思料된다.

現在 演者가 選擇運用하고 있는 少陰人 4體質의 藥房은 大略 다음과 같다. 藥方은 針處方같이 正鵠을 찌를 수는 없지만 때로는 매우 優秀한 效能을 發揮하기도 한다.

10. 少陰人 4體質의 治驗實例

여기에 記述되는 治驗實例는 1988년부터 1999년까지의 約12年間, 뉴욕所在演者의 한의원에 來院한 患者 中에서 少陰人 4體質로 診斷되어 該當 體質針과 體質韓藥으로 治驗한 治驗實例이며 적어도 3회 以上 體質針이 施行되어 體質이 確認된 患者中에서 治療後에도 그 後 經過와 觀察이 可能하여 結果的인 判定이 可한 例로 選擇되었다.

표 3.

病證 \ 體質	腎實體質	脾虛體質	膀胱實體質	胃虛體質
外感表證 或內傷證	芎歸香蘇散 藿香正氣散	芎歸香蘇散 藿香正氣散	芎歸香蘇散 藿香正氣散	芎歸香蘇散 藿香正氣散
消化器障礙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虛實中間證	香附子八物湯	香附子八物湯	香附子八物湯	香附子八物湯
氣血虛證	十全大補湯 八物君子湯	十全大補湯 八物君子湯	十全大補湯 八物君子湯	十全大補湯 八物君子湯
表裏實證	藿香正氣散	藿香正氣散	藿香正氣散	藿香正氣散
裏冷證	十二味寬中湯	香砂養胃湯 理中湯	十二味寬中湯	香砂養胃湯 理中湯

體質醫學의 特徵上 現在 開業 한의사로 할 수 있는 方法으로는 오직 이와 같은 治驗例를 모아 效果로써 立證해 보는 길밖에 더 무슨 方法이 있겠는가 그리고 少陰人 4體質의 來院 頻度數를 보건 데 少陰人 4體質 中 제일 많이 보이는 體質이 膀胱實體質이고 그 다음이 脾虛體質이며 腎實體質과 胃虛體質은 매우 稀少하다는 結論을 얻고 있다. 經驗的인 比率로 말한다면 6:3:0.5:0.5頻度라고 할 수 있다. 願컨대 脈診法 以外的 어떤 客觀的 證明이 가능한 體質診斷法이 나오고 그리고 集團的 例의 二重盲檢的 試驗方法의 治驗成績이 나올 날도 期待해 보는 바이다.

(1) 腎實體質例

1) 潰瘍性 偽膜性 口內炎

한진○ 56세의 남자 約 2개월 전부터 咽喉部가 發赤腫脹하고 痛症이 있고 發熱하더니 구내점막 여기저기에 크고 작은 不定形의 偽膜性 潰瘍이 發生하였다 그러더니 漸漸 甚해져서 咽喉部로 擴散되어 가면서 여러 개가 合瘡되어 더 큰 潰瘍을 形成하는 등 것 잡을 수 없는 狀態가 되어 그곳 N.병원에서 어떻게 해 볼 수 없게 되자 生檢을 爲한 組織片이 맨하탄의 癌專門병원으로 急送되었다. 이러던 때에 요통 치료를 받던 그 분의 교회집사의 소개로 急據이 환자를 왕진하게 되었다. 1/19/88 가서 보니 얼굴은 검게 죽어 있고 피부는 바삭 말려 주름이 주글 주글하였다. 마음을 가다듬고 體質脈을 精診했더니 腎實體質이었다. 그래서 急히 瀉腎方의 體質針을 施針하고 方藥合編대로 補中益氣湯2첩을 投與하였다.

밤사이에 奇蹟과 같은 일이 생겼다. 살아났다는 것이다. 목 부었던 것이 많이 가라앉고 痛症도 덜하고 潰瘍도 그 氣勢가 숙적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이 患者는 나날이 나아서 도합 11회의 體質針과 25첩의 補中益氣湯을 服用하고 快治되었다. 그리고 맥시코로 傳導次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그 여행을 떠나고 없는 중에 조직생검의 결과가 통보되었다. ... 癌이라는 것...이 환자는 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 해 그름까지 가끔 와서 6회의 體質針과 桃仁承氣湯1첩, 桂枝加芍藥湯1첩, 藿香正氣散4첩, 小建中湯16첩, 補中益氣湯30첩을 더 服用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89년에는 人蔘과 鹿茸을 가져와서 補中益氣湯 2劑를 더 지어 간 일이 있는데 그 後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旺盛한 活動을 하고 있고 아주 健康하게 지내고 있다.

2) 坐骨神經痛

최경자 45세의 여자, 腰痛과 左側坐骨神經痛으로 苦生하는지가 4개월 가량 되었다고 한다. 특히 左足脛中이 매우 멍긴다고 하였다. 얼굴에 기미가 심하게 끼었는데 昨年 가을에 어떤 약을 바르고는 더욱 惡化했다고 한다. 食慾은 좋으나 消化는 안 되는 편이고 大便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다. 腹診上 虛軟하며 體質脈은 腎實體質이었다. 瀉腎方을 施針하고 芎歸健中湯 2첩을 投與하였다.

1/15/88, 그 이튿날 많이 좋아졌다고 하므로 또다시 瀉腎方을 施針하고 或時 瀉腎하는 약이 破瘀消積하는 方劑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期待에서 八味疝氣飲去大黃加紅花해서 2첩을 投與하였다. 그랬던

니 그 이튿날 日 삭신이 썩시고 煩熱이 나고 手足心이 달며 몸은 차지고 自汗이 심해졌다고 한다. 그래서 少陰人 十全大補湯으로 2첩 投與하였다. 針은 勿論 瀉腎方이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아주 좋아졌다고 하면서 그 치료를 더 要求해왔다. 針은 瀉腎方으로 效果가 좋은데 이에 該當하는 藥物方劑는 무엇이란 말인가 十全大補湯으로 補脾하면 結果적으로 瀉腎이 된다는 것인가

3) 胃를 切除한 환자

김동수 남자 53세, 12/24/93年초진

約 9개월 전에 胃를 3분지1가량 切除했다고 하면서 手術後의 회복을 위해 왔다. 수술을 왜 했는지에 대하여 본인이 말을 하지 않는 한 더 묻기도 어렵다. 대개는 위암을 수술했을 것이 10중 8.9일 것이다. 그러나 이 환자는 진찰이 끝날 무렵 胃양성 위 천공으로 수술했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體質脈을 보니 腎實體質이었다. 그런데 본인은 針을 싫다고 하기에 少陰人方 十全大補湯에 砂仁2g을 加하여 한제 지어 주었다. 그 후 전화가 왔는데 몸이 몹시 疲勞하던 증세와 약간 어지럽던 증세와 자고 나면 無氣力하던 증세가 모두 호전되고 食欲도 增進하였다 고 하면서 한제 더 부탁한다고 말해 왔다.

(2) 脾虛體質例

1) 右側坐骨神經痛

김경분 여 43세 9/18/95초진,

右側腓骨神經을 沿하여 疼痛이 甚한데 約1年前에 發病했고 그 間 某處에서 針도 맞아 보았으나 效果를 못 보았다고 한다. 背痛도 있다. 脈을 보니 胃虛體質같기도 하고 脾虛體質같기도 하여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먼저 補胃의 針을 하고 容態를 살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하품을 하면서 몸이 노곤해진다고 하였다. 그래서 조속 補脾方의 針을 해주었더니 곧 몸이 正常을 되찾았다. 이렇게 하여 脾虛體質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5회의 針을 더하고는 이 患者의 坐骨神經痛이 매우 좋아졌다. 그러던 것을 하루는 瀉膀胱方을 한번 針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두통과 惡心症을 呼訴하면서 어지럽다고 한다. 그래서 재빨리 補脾方을 針했더니 곧 正常을 되찾았다. 그러나 머리가 若干

멍한 증세는 남아 있다고 하였다. 이 환자는 그 후 4회의 補脾方針과 少陰人 十全大補湯 한제를 먹고 일단 좋아져서 治療를 중단했다. 그 후 이 患者는 그 이듬해인 5/15/96에 右側臀部痛으로 다시 왔다. 그래서 이번에도 補脾方의 針과 少陰人 十全大補湯 한제를 投與했다. 그 후 4회의 補脾方을 더 針하고는 快治되었다.

2) 兩足跟痛

폴티샤론 27세 남미계여성, 초진일 2/18/95

約 1개월반전부터 양쪽 발뒤꿈치가 아파져서 일으면 더하므로 더 이상 걸거나 서 있을 수도 없으며 직장에서 간신히 돌아와 저녁 8시면 벌써 눕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간 뼈 의사, 정형외과, 발전문의 등의 X ray진단과 치료를 받아 왔으나 아무런 것도 발견되지 못했고 또한 아무런 효력도 못 보았으며 처방약인 항염증진통제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體質脈은 脾虛體質脈이 確實하다. 그래서 補脾方을 施針하고 梧子大로 만든 小健中丸을 15丸씩 4일분 12包를 내어 주었다. 그랬더니 4일후인 2/22, 아주 편해졌다고 하면서 來院, 다시 똑같은 針과 약을 주어 보냈다.

2/25/95, 이젠 거의 나았다고 한다. 補脾方의 針과 丸藥 2일분을 더 주었다. 3/1/95, 補脾方針, 丸藥 2일분 投與. 그 후 3일에 전화가 왔다. 快治되어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였다.

3) 左足心痛

란또 힐더랜드 길, 30세 남자 필립핀人, 초진일 7/29/93

이 환자는 左足心인 湧泉穴近傍이 아픈지가 1년이 됐다는 것이다. 그간 발전문의를 비롯 몇군데의 병원도 다녀 보았으나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脈을 보니 脾虛體質이었다. 그래서 補脾方을 施針하고 beepallen(蜂花粉)을 2g씩 14包를 내어 주면서 조식으로 1주일 먹고 오라고 했다. 그랬더니 8/4 와서 말하기를 조금 나은 것 같으나 아직은 아프다고 하였다. 脈을 다시 봐도 脾虛體質이 확실하므로 前週와 똑같은 處理를 해주었다. 이번에는 보름 후인 8/19일에 왔다. 상당히 나았다는 것이다. 또다시

前方處理 1週分을 주었다. 8/25일 前方處理, 9/1 거 의 아픔을 느끼지 못할 만큼 좋아졌다고 한다. 前方 處理, 이렇게 하여 이 환자는 그 후 매주인 9/8, 9/15, 9/22, 10/7, 10/14 도합 11회의 同方處理를 받 고는 완쾌되었다.

4) 不眠症

이정자 52세 여, 9/8/97초진

이 부인은 최근에 오줌소태가 생겨 항생제를 5일 간 먹고 좀 덜하긴 하나 아직도 완전치는 못하다고 하였다. 그건 그렇고 여기를 온 목적은 不眠症이란 것이다. 잠을 못 자니까 기운도 없고 빈혈도 되고 진정제를 먹으니 사람만 자꾸 휘지고 잘 듣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도 食欲은 아주 없지는 않고 消化는 그럭저럭된다고 한다. 脈을 보니 膀胱實體質 같기도 하고 脾虛體質같기도 하여 우선 瀉膀胱方을 施針하였다. 그랬더니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멍 하니 무겁다는 것이다. 그래서 재빨리 補脾方을 施針했더니 卽刻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진다고 하였다. 그래서 少陰人 十全大補湯에 山楂와 砂仁을 加하여 한제 投與하였다.

이 환자는 그날 針을 맞고 韓藥을 먹고는 잘 자고 큰 効力を 보았다고 하면서 다른 환자를 소개해 주었다.

5) 乳房의 몽우리

프랙터 칼렌, 54세 백인 여성, 초진일 11/16/95

이 부인은 진찰 신청서에 Lump in breast라고 써 있으므로 어느 쪽이나고 물으니 右側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옷 위로 촉진해 보니 메추라기 알보다는 크다고 느껴지는 몽우리가 만져졌다. 그래서 검사를 해봤느냐고 물었더니 4개월전에 biopsy를 했다는 것이며 수술을 하자고 하는데 자기는 죽어도 안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몽우리가 양성인지 악성인지 알 수는 없으나 아무튼 수술을 절대 거부하고 자연치 료인 한의사를 찾아온 용기가 고맙긴 하나 한편 부 담도 느껴졌다. 脈을 보니 脾虛體質이 확실했다. 그 래서 補脾方을 施針하고 香砂養胃湯의 山楂를 12g 으로 하여 4침을 주면서 1일 1침씩 다려서 2회에 나누어 먹으라고 했다. 그랬더니 8회제인 12/12일에 와서 脫力感을 호소하였다. 그래서 脈을 再確認해

도 脾虛體質이 맞으므로 針과 약 중 어느 것이 脫力感을 주는 것 같냐고 물었더니 약을 먹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래서 少陰人 十全大補湯으로 處方하였다. 이렇게 되어 모두 18회의 針과 十全大補湯 46침을 먹고 치료를 쉬기로 하였는데 乳房의 몽우리를 만져 보니 반쯤으로 줄어 있었다. 이번에 이 글을 쓰느라고 이 부인을 내게 소개한 김건이란 분에게 전화를 걸어 5년 전에 내게 소개했던 그 백인부인의 안부를 물었더니 지금도 건강하며 아무 일 없다는 것이었다.

6) 皮膚搔痒症

우오가와겐지 30세, 일본계 남자 2/8/93초진

4주째 피부가 가려워 잠을 못 이룰 정도인데 병 원 處方은 별 효력이 없다고 한다. 脈을 보니 脾虛 體質이 正確하다. 그래서 補脾方을 施針하고 桂麻各 半湯 6침을 投與하고 1일 1침을 다려 2회에 나누어 먹으라고 했다. 2/13일, 著効를 보았다고 하면서 매 우 기뻐하였다. 麻黃劑여서 약이 좀 지치더냐고 물 었더니 전혀 아무렇지 않았고 대단히 좋더라는 것 이었다. 그래서 補脾方은 針하고 前方 6침을 더 지 어 주었는데 그것으로 完快하였다. 麻黃은 太陰人藥 으로 되어 있으나 證이 있을 때는 少陰人도 잠깐은 쓸 수 있다.

7) 眩暈動悸症

모리하루미, 일본계 여성 28세 미혼, 9/2/91 초진 주증세 기록란에 다음과 같은 증세를 써 놓았다.

- ① 6개월 전부터 眩暈, 動悸, 숨찬 증세가 있음
- ② 2개월 전부터 發熱함
- ③ 설사가 심함

이게 무슨 병일까, 아무튼 脈에서 體質만 나와 주면 體質針과 韓藥을 줄 수 있지 않은가 脈을 보 니 脾虛體質이다. 그래서 곧 補脾方을 針하고 香砂 養胃湯 5침을 내어주고 1일 2침씩 服用토록 했다. 9/5일 와서 하는 말이 ①, ②, ③의 모든 증세가 완 치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다시 補脾方을 針하고 前 方으로 5침 더 주었다. 9/13일, 補脾方針, 前方5침 더 投與, 환자는 이것으로 完快되어 職場을 되찾게 되었다.

8) 痔疾

김말순, 32세의 산모 6/22/93초진

현재 두 번째 애기를 낳은 지 4개월째, 痔疾은 첫 애기를 낳은 후 便秘가甚하더니 肛門에 灼熱感과 약간의 痛症을 느끼면서 차차로 痔核으로 발전 점점 커지면서 몇 차례의 出血이 있었다는 것. 그래도 그럭저럭 지냈는데 이번 애기의 임신 중에 가끔 便血이 보여 놀라기는 했으나 痛症은 없었다. 그러던 것이 이번 産後에 便秘가 또甚하더니 痔裂이 되어서인지 2개월간이나 便時에 出血이 되어 貧血이 되므로 某 醫師를 보였더니 外痔와 內痔가 다 있다고 하면서 約 한 달전에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外痔만 하고 內痔는 그냥 두어서인지 그 후 동통이 심해지고 便時마다 出血로 이어져 참으로 苦痛스럽다는 것이다. 脈을 보니 脾虛體質이다. 즉시 補脾方을 針하고 芪歸健中湯에 人蔘 何首烏 党參 각4g을 가하여 한제 投與하였다. 그리고 服藥中 連續 8회의 補脾方을 針했는데, 便秘 疼痛 出血 痔裂 등 증이 모두 없어지고 아주 健康하게 되었다.

9) 顔面麻痺

강정숙 63세의 老婆, 8/25/93年 초진

9年前에도 안면마비가 한번 왔었다고 한다. 당뇨병도 있는데 10年째 약을 먹고 있다고 한다. 현재는 右側神經의 麻痺이고 벌써 4주째이며 많이 멍기고 매우 불편하다고 한다. 右側 귀에서 耳鳴症이 심하고 게다가 不眠症까지 있다고 한다. 脈을 보니 脾虛體質이 확실하다. 即刻 補脾方의 體質針을 施行하고 韓藥도 兼治하자고 했더니 針術費밖에 없다는 것이다. 몸은 氣血이 極虛한데... 그래서 千金內托散을 丸藥으로 만든 것과 蜂花粉을 各各 食前食後에 服用토록 配慮해 주었다. 그랬더니 이틀 후인 8/27일에 와서 말하기를 蜂花粉을 먹으면 不眠症이 더甚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蜂花粉은 回收하고 內托散만 먹도록 하고 針을 뇌주어 보냈다. 그후 9월에 접어들어 4회의 針을 더 받은 후 韓藥을 服用하겠다고 하기에 곧 少陰人方 十全大補湯 한제를 投與하였다. 이 환자는 그 후 3회의 補脾方의 針을 더 받고는 안면마비가 快差하였다.

10) 不定愁訴症

홍영림 34세의 주부, 3/24/93초진

約 반 년 전에 腎石수술을 받은 바 있는 조그만한 體軀의 부인이다. 진찰의뢰서에 다음과 같은 증세를 적어 놓았다. 「왼쪽 눈, 뒷머리, 뒷목, 뒤옆구리 무릎이 안 좋고 잠을 푹 자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스 증독된 것같이 정신이 몽롱하며 위장이 안 좋고 늘 눈이 피로하고 기운이 없음 이상과 같은 증세가 최근에 와서 더욱 심함」

脈을 보니 脾虛體質이다. 곧 補脾方을 針하고 參朮健脾湯 액기스제 3포를 내어주었다.

6/21/93 약 3개월 만에 나타났다. 그때 그 針을 맞고 그 약 3포를 먹고는 모든 증세가 사라지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오줌소태가 생겨 3일째 尿血 腹痛, 요통이 發生하여 의사의 處方으로 항생제를 먹었는데 噯氣 乾嘔逆 등의 위장장애가 생기고 피로하며 목뒤도 멍기고 등도 아프다는 것이다.

역시 脈은 脾虛體質脈 그대로다. 補脾方을 針하고 參朮健脾湯 10첩을 내어 주었다.

6/23/93 약을 먹고 1주일만에 온 것이다. 좀 나아졌는데 針은 싫고 약만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前方에 桂枝5g을 加해 10첩投與

11/23/93 약 5개월만에 왔다. 이번 증세는 한달전에 自然流産後에 四肢煩痛하고 無力하며 腰痛이甚하다는 것이다. 모처에서 韓藥 한제를 먹었는데 이 집약이 더 맞는 것 같아서 왔다고 한다. 역시 針은 싫고 보약만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少陰人十全大補湯에서 黃芪를 빼고 香附子 4g을 加하여 다려줌

3/3/94 4개월만에 왔다. 이번 증세는 최근 口味가 없고 食事를 하면 속이 곧 갑갑해지고 매우 胃가 無力하다는 것. 春困症이 온 듯하다. 少陰人十全大補湯을 한제 다려줌. 3/12, 3/21, 補脾方의 針을 맞고 감

4/5/94 前方한제 다려감

4/20/94 前方한제 다려감

1/9/95 애기를 낳은지 25일째임. 몸이 붓고 四肢가 煩痛하고 不眠症임 母乳를 먹이므로 그 점을 參考해달라고 함. 前方한제 다려감

2/17/95 前方한제 다려감

8/25/95 현재 産後 8개월째인데 左背와 左脇이 疼痛하고 몸이 몹시 피곤하고 帶下가 甚하므로 子宮癌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前方한제 다려감

7/30/96 前方 반제 다려감

8/25/97 두번 째 애기를 낳은지 2個月 되었고 他州로 이사를 갔으므로 우송을 원한다. 약간의 表證과 消化장애가 있다고 하기에 少陰人 十全大補湯에서 去黃芪加香附子해서 한제 송부함

11/12/97 전화주문이 왔기에 前方에 加山楂4g해서 한제 송부함

體質針과 體質약은 이상과 같이 한번 진단되면 그 환자가 무슨 증세를 호소하건 또한 무슨 병이건간에 一生을 통해 投與할 수 있는 方針이 서 있으니 참으로 便利하다.

(3) 膀胱實體質例

1) 顏面神經麻痺

로페스 엔제리카, 19세의 중미계 여학생, 1/14/00 초진

右側顏面神經이 麻痺가 되어 口眼喎斜가 된지 3개월이 되었다. 그간 병원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별다른 요법이 없고 시간이 가면 낫는다고 한다는 것 엄마와 같이 온 이 여학생은 걱정이 대단하다. 몸은 細長하고 神經은 아주 예민하게 생겼다. 體質脈의 脈動이 左右側이 모두 第2指와 第3指間에서 觸知되므로 太陽人 같기도 하고 少陰人 같기도 하여 區別이 힘들다. 左脈을 第3指로 보고 右脈을 第2指로 본다면 肝虛體質인 太陽人이 될 것이고 左脈을 第2指와 第3指로 보고 右脈을 第2指로 본다면 膀胱實體質인 少陰人이 될 것이다. 이런 때는 確認 體質針의 施針이 要望된다. 그래서 먼저 肝虛體質인 太陽人方인 補肝方을 針하고 桂枝湯 엑기스 2包를 내어 주었다. 그 이튿날 아무런 效果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정말로 고칠 수 있냐고 다짐한다. 다시 脈을 精診하니 少陰人 쪽인 膀胱實體質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瀉膀胱方으로 針해주고 桂枝湯 엑기스 3包를 주어 보냈다. 이틀 후에 온걸 보니 좀 나은 表情이어서 前方대로 針과 약을 주어 보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왔다. 내가 보기에 이젠 좀 될 것 같은 確信이 섰다. 환자도 氣分이 좋다고 한다. 그래서 前方대로 針과 약을 주어 보냈다. 그후 이

여학생은 2/19일까지 8회의 瀉膀胱方을 더 針하고 完快하였다.

2) 夜啼症

3세의 男兒, 演者의 손자이다. 밤에 자다 말고 우는 병이다. 대개 2시쯤이다. 몹시 흐느끼며 울어대니까 온 집안 식구가 다 깨서 법석을 떨어야 한다. 울 때의 표정을 보면 눈색깔이 이상함을 느낀다. 甘麥大棗湯을 먹이면 확실히 效果는 있는데 얼마 후에는 그 증세가 또 생기곤 한다. 體質을 알아야 針을 놓겠는데 幼兒의 脈을 본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자기 아버지는 心虛體質이고 어머니는 肝實體質인데 四象으로 따진다면 父는 太陽人屬에 넣어야 하고 母는 肝受熱裏熱實한 太陰人인 것이다. 그러나 體質은 꼭 父母의 體質中에서 하나를 選擇해서 출생하는 것도 아니어서 좀 더 클 때까지 기다린 후에 脈을 보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그러나 하루는 한의원으로 나오게 하여 積極的으로 손자의 體質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진찰대에 눕히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자기 母가 옆에 붙어서 갖은 시중을 들 때 精診을 거듭했다. 左側은 第2指와 第3指에서 觸知되는데 右側은 第2指인지 3指인지가 區別이 안 간다. 어떻게 보면 第3指 같고 어떻게 보면 第2指 같고, 第2指면 膀胱實體質일게고 第3指라면 脾虛體質일 것이다. 아무튼 少陰人屬인데 나의 9남매 형제 자매 중에 少陰人이 한 사람 있기는 있다. 그래서 針을 놓아 보기로 하고 먼저 脾虛體質의 補脾方을 左側에 1회 그리고 右側에 1회 針했다. 그랬더니 아이의 顔色이 黑黃色으로 突變했다. 그 모습을 본 母가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에 얼굴이 금방 노래지네요. 그리고 아이도 거벽 거벽하면서 울지도 못한다. 이거 야단났다 손자 잡게 됐으니가 그래서 속히 膀胱實體質의 瀉膀胱方을 再針했다. 그랬더니 卽席에서 아이 얼굴에 血色이 들었다. 그래서 針力을 強化하기 위하여 左右에 各各 4회씩 더 針해서 보냈다. 이로써 큰 손자의 體質이 찾아졌는데 그 후에도 수 차례의 針을 더 맞고는 다시는 夜啼를 하지 않게 되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둘째 손자 이야기도 해두자. 2돌 좀 지나서 의자 등받이에 매어 달렸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안면이 정통으로 마루바닥을 치게 되었다. 코속이 터지고 이들과 입

술이 범벅으로 터져서 아이가 숨이 막혀 울지도 못하게 되었다. 삼시간에 얼굴이 부어서 괴상한 모습이 되었다. 그 후 이 상처가 치유되는데 2주이상 걸렸다. 그런데 그후부터 이 아이에서 驚氣가 발생, 몇 번씩이나 구급차로 병원을 달려가는 일이 벌어졌고, 양쪽 코에서 교대로 코피가 터져서는 자다말고 옷과 이불을 흥건하게 적셔 놓는 것이다. 소아과를 계속 다녀도 전혀 고쳐 놓지 못하고 한의사인 할아버지도 보기가 딱할 뿐 차일피일 시일만 보내게 되었다. 아이는 늘 비영비영하고 한쪽 코에는 늘 숨방망이가 끼어져 있어 그 모습이 가관이다. 자 이 녀석도 體質을 찾아야 하겠는데 도무지 엄두가 안난다. 그럭저럭 세 살이 넘게 되자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어 하루는 體質 찾기의 非常을 걸었다. 多幸히도 첫수에 體質이 잡혔다. 肝虛體質이었다. 그래서 補肝方의 體質針이 수일간에 걸쳐 치러졌는데 그 후론 다시는 코피를 흘린 일이 없고 성격도 突變 아이가 매우 活潑해졌다.

3) 足跟痛

일로리제이슨 32세의 흑인, 8/2/95年 초진

농구를 하다 右足跟을 다쳤는데 벌써 3개월이 되어도 낫지 않아서 절룩거리고 있다. X ray상으로는 별일은 없다고 한다.

脈을 보니 膀胱實體質이므로 左右穴을 7회씩 반복해서 針하고 mineral ice를 발라주고 붓대를 감아서 보냈다.

이 환자는 이틀 후인 8/4일과, 그 후 4일 후인 8/8일 이렇게 도합 3회의 치료를 받고는 快治되었다.

4) 肘膝關節痛

페르난도호세, 24세의 멕시코인 남자, 2/13/92年 초진

4개월전 자동차 사고 후 四肢關節痛이 생겼다고 한다. 평소에 위장도 약하다는 것, 體質脈은 膀胱實體質이다. 이 환자는 2/24일까지 모두 5회의 瀉膀胱方의 針을 맞고 關節痛은 물론 위장병까지 좋아졌다.

5) 肩腕症候群

버카러인야, 48세의 백인부인, 7/30/94年 초진

이 부인은 肩腕症候群에 腰痛, 右臀部痛까지 곁하고 있다. 7/30일과 8/6일, 이렇게 2회 補脾方을 針했는데 아무런 効力이 없다고 한다. 脈을 자세히 보니 膀胱實體質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瀉膀胱方을 針해 주었더니 그후 한번 더 맞고는 快治되었다.

6) 앨러지와 요통

우에야마○○○ 41세의 남자, 12/28/91年 초진

이 환자는 심한 앨러지와 요통으로 수 年째 곁하는 환자인데 앨러지도 문제이지만 요통은 원인을 모른다는 것이다. 주로 새벽이면 요통이 심해 더 이상 잘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종일토록 무겁고 둔통은 지속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자감소증 때문인지 부인이 임신이 안 된다는 것이다.

처음에 나는 이 환자를 太陰人 肝實體質로 보고 瀉肝方을 5회나 施針했다. 그랬더니 allergy는 더욱 나빠지고 요통도 더한 듯하고 피로 권태감이 조금도 改善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脈을 보면 兩쪽이다 第2指에서 뛰고 게다가 左側이 더 크니 肝實體質脈으로 볼 수밖에... 肝實體質脈은 元來 權度杭 先生이 發見한 木陽體質脈이다. 그런데 이 肝實體質脈과 가장 混同되기 쉬운 脈이 膀胱實體質脈이다. 兩쪽이다 第2指에서 느껴지고 게다가 左側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점까지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詳細히 보면 區別은 可能하나 熟練을 要한다. 肝實體質脈은 좀더 充實하여 洪大 또는 沈實而有力한 맛이 있으나 그런 面에서 膀胱實體質脈이 劣勢이며 또한 肝實體質脈은 鄭重하게 兩側 第2指에서 脈動이 感知되나 膀胱實體質脈은 第3指쪽으로 흘러 내려가는 맛이 있다. 그리고 腹診을 해보면 前者는 腹候가 有力하나 後者는 無力한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당뇨병 등 소모성 질환을 장기간 앓고 있는 환자는 肝實體質者라도 腹候의 힘이 빠져 無力할 수가 있으므로 注意를 要한다.

이렇게 되어 이 환자는 제6일째부터 瀉膀胱方의 針을 맞게 되어 이듬해인 1월30일까지 도합 33회의 치료를 받고 앨러지와 腰痛 그리고 피로권태 등 증이 모두 사라지고 아주 健康해졌다.

7) 慢性胃腸病 其他

강철○ 32세의 남자 3/12/92年 초진

이 분은 소화장애와 변비가 주증이며 여러 해가 됐다고 한다. 右側 腕部에 痛症도 있다. 脈을 보니 膀胱實體質이므로 瀉膀胱方으로 針하고 香砂六君子湯 10첩을 내어 주었다.

7/24일 약 4개월만에 왔다. 그 때 그 針 맞고 그 약을 먹고는 아주 좋았었는데 그 증세가 또 왔다는 것. 針藥前方대로 함

10/19일 3개월만에 왔다. 이번에는 아침에 조깅을 한 결과 胸部가 결리고 호흡 곤란한 증세가 생겼다는 것 針前方대로하고 藥도 前方16첩을 지어 줌

7/7/93年 해가 바뀌고 9개월만에 있다. 3일전에 해수욕을 한 후 不眠症, 食慾不振, 消化障礙, 左脇痛 등이 생겨 상당히 고통스럽다는 것, 針은 瀉膀胱方하고 小建中湯 3첩을 내어 주었다.

9/3/93 2개월만이다. 그 針과 그 약 세 첩을 먹고 모든 증이 사라지고 생기가 났었는데 수 일째 소화 장애와 요통이 생겼다는 것, 역시 침은 瀉膀胱方, 약은 五積散去麻黃方 3첩.

9/7/93 몹시 피로하고 無氣力하다는 것. 침은 瀉膀胱方. 약은 少陰人 十全大補湯3첩

9/17/93 針藥前方處理

9/22/93 기운이 딸리고 피로하다는 것 體質이 膀胱實體質이니 針方은 瀉膀胱하는 길밖에 道理가 없는데 무슨 더 좋은 補氣血하는 針處方은 없을까, 그래서 약은 十全大補湯으로 주고 같은 少陰人인 方인 補脾方을 針해주었다.

12/4/93 그 때 그 針을 맞고 녹초가 됐다는 것, 어 지럽고 머리도 아프고, 무슨 병이 온 것 같아 그 후 병원을 다녔다는 것, 게다가 怔忡 不安 不眠症까지 왔고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소화도 안되고 몸이 형편없다고 한다. 한방적으로 말하면 臆虛證의 증세이다. 그래서 補臆한다고 보는 舍岩의 臆正格을 針해 주었다. 그랬더니 즉석에서 頭重과 심한 脫力感을 呼訴하면서 이젠 針을 더 안 맞겠다고 한다. 나는 方今 맞았던 針方을 빨리 取消해야 되므로 안 맞으면 안된다는 말을 強調하면서 그때 녹초가 되었다는 補脾方을 針해보았다. 그랬더니 卽席에서 어 지럽고 속이 메석메석하여 吐할 것 같다고 하므로 재빨리 瀉膀胱方으로 再針했더니 모든 증이 平靜되었다. 結局 이 환자는 瀉膀胱의 針方만이 듣는 膀胱實體質이란 것이 確認되었다. 나는 이날 小建中湯 6

첩을 무료로 내어주었다.

12/7/93 추위를 타고 四肢厥冷과 無氣力을 호소하므로 瀉膀胱方을 針하고 白朮附子湯 6첩을 내 주었다.

2/27/95 해수로 2年만에 왔다. 그간 건강이 좋아져서 무사했으며 운동을 하다가 발을 빼었다는 것 針은 亦是 體質針인 瀉膀胱方을 하고 봉대를 감아 보았다.

11/21/95 過食을 한 後 消化장애가 왔다는 것. 瀉膀胱方으로 針함.

10/3/96 해가 바뀌어 1年만에 왔다.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가 삐었다는 것, 瀉膀胱方으로 針하고 허리에 附缸을 붙여 주었다.

그후 이분을 約 2年후인 98年 12월 모회합에서 만난 일이 있는데 매우 건강하다고 했다.

8) 우울증

김영 36세의 부인, 7/10/96年 초진

6年전에 정신과 치료를 2年間 받은 일이 있으며 근래 2년간은 울지 않으면 자는 것이며 자다 깨면 또 운다고 하는 환자이다. 望診上 눈에 氣脫이 되어 멍청하며 焦點이 없다. 脈을 보니 膀胱實體質이다. 그래서 瀉膀胱의 針方을 하고 少陰人 十全大補湯 한제를 投與하였다. 그리고 7/19일까지 연 6회의 針을 더했다. 그리고 8월에 와서 7회의 針을 더하고는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9) 扁桃腺炎

권연옥 28세 여, 12/6/97초진

扁桃가 發赤腫脹하고 惡寒發熱한데 嚔下痛이 심하며 食欲은 全無하고 無氣力하기 짝이 없다고 한다. 들여다보니 兩扁桃가 부어(左側이 더함) 음식물 넘기기가 힘들게 보였다. 10년도 넘었으며 감기가 들면 더욱 惡化되어 이 모양이 된다는 것이다. 脈을 보니 膀胱實體質이다. 즉각 瀉膀胱方을 針하고 少陰人 十全大補湯 한제를 投與하였다.

4/4/98 作年 12월에 針한번 맞고 지어 간 약 한제를 먹고는 熱도 내리고 食欲도 좋아지고 氣力이 나면서 곧 腫脹되었던 扁桃가 상당히 消腫되었다는 것이다. 最近 過勞를 했더니 다시 扁桃가 아프고 부어오를 氣勢여서 다시 왔다는 것. 곧 瀉膀胱方을 針하고 前藥方 한제를 내어 주었다. 그후 4일만에 針

을 맞으러 왔다. 瀉膀胱方으로 針, 7/27/99 그간 1年 동안 扁桃가 無事했는데 며칠 전 감기를 앓은 후 좀 부어오르고 아픈 증이 생겼다는 것이다. 瀉膀胱方을 針하고 前藥方 한제를 投與하였다.

10/14/99 補藥을 원한다. 扁桃는 어떠냐고 물었더니 좋아져서 지금은 괜찮다고 했다. 前方針과 前藥方 한제를 投與하였다.

10) 甲狀腺腺腫

김미옥 41세 주부, 9/1/98年 초진

左側 甲狀腺이 커져서 밤뜰만한 結節이 만져졌다. 3年이 됐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良性腺腫으로 봐야 될 것이다. 바세도病같은 全身症狀은 없다. 서울의 C한의원에서 韓藥을 지어왔는데 그 약을 먹으면 가슴이 답답해져서 중단했다고 한다. 脈을 보니 膀胱實體質이다. 곧 瀉膀胱方을 針하고 少陰人 十全大補湯 엑기스 4포를 주었다. 약이 맞으면 더 가졌다는 것이다.

9/3 針맞고 氣分이 좋아졌고 약도 잘 맞았다고 하면서 그 약 한제를 원한다. 瀉膀胱方針을 함. 이렇게 되어 이 환자는 9/8, 9/9, 9/26, 10/3, 10/17, 10/24, 10/31 등 8회의 針을 더 맞고 腺腫이 만져지지 않게 되었다.

(4) 胃虛體質例

1) 脫毛症

홍성○ 42세 여, 9/14/99 초진

1年째 원인불명의 脫毛症이 頭髮에 생겼다. 頭頂部 側頭部 後頭部 등에 大小 不定形의 丹形脫毛窩가 7~8個處 눈에 띠었다. 토리노에 거주하므로 그곳 의사들의 치료를 받았으나 別無效果

脈을 보니 胃虛體質이다. 卽時 補胃方으로 針하고 少陰人 十全大補湯 한제를 投與하였다. 그리고 每日 와서 針을 맞으라고 하였다. 9/15 針 前方, 9/16 便秘가 된다고 하므로 무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싶어 瀉膀胱方을 針했더니 卽刻 머리가 몽롱해진다고 하였다. 그래서 재빨리 補胃方으로 再針하였더니 곧 회복되었다. 胃虛體質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이 환자는 補胃方의 針12회를 더 받고는 토리노로 귀국하였다. 그 후 韓藥 한제를 더 주문해간 이 환자는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했다는 희소식을

전해 왔다.

2) 右足首痛6年

미우라유리코 여, 8/6/92초진

약 6年전에 右側 발목을 다친 일이 있는데 그 후 지금까지 그 발목 아픈 증세가 낫지 않는다는 것이다. 2年전에 X ray도 찍어 보는 등 발의사의 치료도 받은 적이 있으나 여전하다는 것. 그런데 비가 오르면 더 아픈 것으로 보아 관절염 기운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한다.

脈을 보니 胃虛體質이다. 補胃方을 針함

8/8일 針 맞은 후론 아주 좋아졌다고 한다. 참으로 針의 効力은 神奇하다는 것. 前方으로 針함

8/10일 前方針함

환자는 이것으로 끝냈는데 그 후 소식을 들으니 아주 좋아졌다고 하였다.

3) 神經性 斜頸症

김영옥 9/6/97 초진

胸乳筋에 發作性痙攣이 일어나 빈번한 右斜頸症을 일으키는 42세의 女子이다. 發病한지는 8年쯤 되었고 좋을 때는 7~8개월씩 아무 일 없으나 나쁠 때는 한달에도 2~3회씩 發作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右側 어깨가 빠질 듯이 아프고 一過性이긴 하지만 참으로 견디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脈을 보니 膀胱實體質 같기도 하고 胃虛體質 같기도 하는 등 少陰人은 少陰人쪽인데 망설여졌다. 그래서 먼저 瀉膀胱의 針을 하고 表情을 살폈다. 그랬더니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기분이 불쾌해진다고 하였다. 그래서 재빨리 補胃方을 再針했더니 그런 증세들이 곧 사라졌다. 그 후 이 부인은 16회의 補胃方針을 더 맞고는 2年이 지난 現在까지 무사하다.

4) 眩暈症

나하리베카 16세 중미계소녀 7/12/93年 초진

發作的인 어지럼증이 빈번하게 생기는데 빙글빙글 돌고 구역질이 나서 먹은 것은 오래된 것까지 다 토하게 되며 반나절 정도는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는지가 6~7年 됐고 그간 여러 의사를 전전했으나 원인도 모르고 별 치료

법도 없어서 부모 속을 태운다는 것이다. 게다가 근래에는 이유 없이 左側 兩踝가 發赤腫脹되어서 步行까지 곤란해졌다고 한다.

脈을 보니 胃虛體質이므로 補胃方을 針했다. 약은 무슨 약이든 다 토하므로 못 먹는다고 한다.

이 소녀는 그 후 7월에 6회, 8월에 8회, 9월에 4회, 10월에 1회의 補胃方의 針을 더 맞고는 이러한 發作이 없어졌다. 그리고 그 후 발목 부었던 증세도 없어졌다.

Ⅲ. 結 論

(1) 李는 少陰人의 病論을 腎受熱表熱病論과 胃受寒裏寒病論의 2論으로 나누어 述한데서 後日 李에 依한 少陰人 2體質說 卽 熱少陰人, 寒少陰人 說의 源泉이 되었고 이어서 權에 依한 8體質醫學의 水陽體質과 水陰體質로 發展된 것으로 안다.

(2) 演者는 本考察에서 少陰人에게는 上記2體質 뿐만 아니라 臟腑經絡의 天稟의 實과 虛에 依한 都合 4體質 즉 腎實體質, 脾虛體質, 膀胱實體質, 胃虛體質이 있다는 假說을 主唱하고 이를 診斷해 낼 수 있는 脈圖와 體質針處方을 提示하고 이 方法에 依한 診斷과 治療法으로 治療成果를 올린 實際臨床例 27例를 證據로 提示하면서 少陰人에게 以上 4體質이 實際로 存在하고 있다는 것을 通知코져 하는 것이 이 考察의 意義이며 結論인 것이다. 아울러 同學 諸賢의 追試와 鞭撻을 期待해 마지 않는다.

參考文獻

1. 東醫壽世保元: 李濟馬, 咸興發行本, 1940.
2. 四象醫學原論: 洪淳用·李乙浩, 壽文社, 1973.
3. 四象診療保元: 洪淳用, 書苑堂, 1991.
4. 四象醫學: 전국 한의대 사상의학교실, 集文堂, 1997.
5. 「體質針」: 權度杭, 國際針灸學術大會會誌, 1965.
6. 「體質針의 研究」: 權度杭, 中央醫學誌, 1973.
7. 「24體質論과 그 脈診法 研究」: 廉泰煥, 東洋醫學學術大會會誌, 1986.
8. 東醫四象處方集: 廉泰煥 編, 金剛出版社, 1967.
9. 사상의학회지: 사상의학회
10. 大韓韓醫學會報: 大韓 韓醫師 協會
11. 黃帝內經 素問靈樞: 馬元台 註, 牛頃書局.
12. 難經의 研究: 本間祥白 著, 醫道の 日本社.
13. 圖解十四經發揮: 同上.
14. 東醫寶鑑: 許浚, 豐年社.
15. 鍼灸大成: 楊繼洲, 杏林書院.
16. 舍岩道人針灸要訣, 杏林書院.